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1월 1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전략산업과	담당자	• 미래기술혁신팀장 최덕중 ☎440-4206 • 담당자 김삼용 ☎440-420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최신 미래차(EV) 해체·기술분석(Tear down) 착수

- 지방정부 단독사업 최초, 글로벌 최신 전기차 분해해 부품 및 기술분석 실시 -
- 부품기업과 기술분석 정보 공유, 이달 15일까지 기업 참여의향 접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테크노파크(ITP),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과 함께 지방정부 단독사업으로는 최초로 최신 글로벌 전기차를 해체해 부품 및 기술구조 등을 분석하는 테어다운(Tear down)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 628개사 중 약 57.8%가 미래차 전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 및 전동화 가속화 등 미래차 중심 글로벌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품기업에 전기차 해체·기술분석(Tear down) 정보를 제공해 미래차 기술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해체·분석(Tear down)은 글로벌 판매량이 가장 많고 최첨단 기능을 탑재한 최신 전기차를 해체해 ▲파워트레인 ▲열관리 ▲새시 ▲전장 ▲차체 등으로 나눠 기업이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핵심부품 기

솔구조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게 된다.

시는 최근 사업기획, 차량구매, 성능테스트 등을 모두 마치고 해체작업에 착수했으며, 12월 초까지 차량 해체와 기본 기술분석을 끝내고 분석정보 공유를 위한 ‘해체·분석(Tear down) 부품 전시회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올해 해체한 부품을 부품기업에 임대 분양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업이 원하는 핵심기술 부품에 대한 역설계 등 수요 맞춤형 정밀분석을 지원하고, 격년 주기로 미래차를 해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해체·분석(Tear down)과 연계한 기술전환 컨설팅,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전문기술 교육, 정부과제 지원 등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 촉진을 위한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부품기업의 신속한 미래차 기술전환 지원을 통해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생태계 및 산업구조를 재편해, 최근 침체되고 있는 인천 자동차산업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ITP는 12월 개최 예정인 전시회 및 기술세미나 참여 의향과 기술분석 희망부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달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ITP 누리집(itp.or.kr)이나 자동차산업센터(032-260-0816)로 문의하면 된다.

< 테어다운(Tear down) 사진자료 >

1 파워트레인	2 열관리	3 새시	4 내외장 및 전장	5 차체
				

